누가복음 5:17-20

17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18 그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19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20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네 죄가 용서받았다.”

Luke 5:17-20

17 One day while Jesus was teaching, some Pharisees and teachers of religious law were sitting nearby. (It seemed that these men showed up from every village in all Galilee and Judea, as well as from Jerusalem.) And the Lord's healing power was strongly with Jesus.

18 Some men came carrying a paralyzed man on a sleeping mat. They tried to push through the crowd to Jesus,

19 but they couldn't reach him. So they went up to the roof, took off some tiles, and lowered the sick man down into the crowd, still on his mat, right in front of Jesus.

20 Seeing their faith,
Jesus said to the man,
"Son, your sins are forgiven."